

자기가 하고 가니까 자기한테 다 놓으세요!

25면에서 계속

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딱히 가지고는 찰떡같이 맞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오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뭐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그거 얘기해드렸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쫓아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저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꿈도 생기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고 바뀌서 자꾸 썰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뀌서 새물로 쓰게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할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꿔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생각이면 바뀌 쓸 거를, 글씨,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냥 주인공 놀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기 그거 과거 것이라 현실 것이라 그냥 딱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 놀이 해볼래!' 하고 다 거기다 박는 거예요.

질문자2(남): 믿고 말고도 되놓는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스님: 예.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질문자3(남): 스님께서 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스님께 질문해야 할 부분들은 이미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인공과 믿음과 놓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히려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말고도 이렇게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흥수가 낫을 경우에는 독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밤새도록 안달을 하면서 독을 썰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경쟁사라든지 경쟁자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사전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 글썽, 자식을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독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놀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딱치면 딱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뺄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뺄 거거든요. 그렇게 뺄면 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말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냥 있다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놀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놀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내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돌로 보실 말아요. 돌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똥똥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똥똥이와 생령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똥다고 생각될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돌로 볼 것도 없어요.

질문자4(남): 스님의 무량광대하고 대자대비하신 법석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인연과 주인공 자리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빌어 오늘 스님께서 친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돌아 세기는 신정으로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조상님과 스님, 주인공 자리 그리고 제가 들어 아님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촛불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 질문 하나 올

라게끔 만들어주거나 부모가 해주거나 이래도 그런 훨씬 더 물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었습니까? 내가 해야만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은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돌아나 되나요? 단 하나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제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자기가 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 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러가 터져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 촛불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질문자4(남):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4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실은 한마음 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이 육은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삼개월 전쯤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작은 아버님께서 성당에 다니신다마는 저희 도반들이 함께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져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더 멀로 아주 건강하게, 학교에 계시는데 학교에 있던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시고 한 달 반쯤 계시다가 몸을 벗으시는 그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웃으시면서 이 웃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저희 목포에 있는 청년 법우를 제가 스님을 모시고 평문안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 학생법회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작년에 있었던 광주에 대법회에서도 스님께 질문 시간을 통해 한 몸을 불살라 그야말로 스님과 부처님께 보답코자 하겠다고 말씀드리던 법우입니다. 어제 막상 병원에 가 보니 혼수상태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불과 한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이렇게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기력을 되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게 전부 스님께 대한 회향이었습니다. 직접 그 아버님을 모셔다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나오면 출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전부 스님께 대한 회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공부를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정진해야겠다는 것과 저 자신 또한 이렇게 덤으로 사는 마당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처님 회상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야 전부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우둔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금(鎔)이라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가고 음이 없이 천리라도 한 찰나도 요 때문 봐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와 같이 만약에 내가 심부름꾼이라면 한 찰나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에 되려라 하니깐 업신여긴단 말이예요. 자기를, 자기 주인공을 업신여겨요. '아이구, 나한테다 내가 놓여?' 이라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 업신여기는 버릇을 갖지 마세요. 항상, 자기의 자기한테다가 '주인공!' 하면 결해서 항상 에너지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즉 내 마음 내 마음이 돌아오게 동참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함부로 다루어서 안 되죠. 업신여겨서도 안 되죠. 자기면서 자기 아니고 자기가 아니면서도 전체가 자기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자기 주인공이 일 저지른 걸 자기 주인공이 해결해야 된다 하고 거기 믿고 놔라 이거죠. 놓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인연이 된 거죠. 인연이 됐으니까 돌아 안 되죠. 그러니까 천리만리라도 얘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가고 음이 없이 갑니다. 마다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는 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힘이 없든 있든 막론하고 그냥 나무냐 띠냐. 그 믿음, 같이 한마음으로 나무냐 띠냐는 믿음 때문에 나무는 거죠. 육안으로는 오고 가는 게 보이지 않겠지요. 너무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질문자4(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 다 끝났는데요.
스님 그럼 끝났으면 끝난 대로 끝난 거지요.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제를 하는 겁니다!
”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과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강선원, 현 무사암 주지)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실전 사주 명리학 제2기 수강생 모집

- ① 인원 : 00명
- ② 교육개강일자 :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 ③ 교육기간 : 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5시
- ④ 신청방법 :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문과 1기수강생들의 교육후기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의 실전 사주명리학 강의는 이제까지 어느 고서, 어느 곳에서도 익힐 수 없었던 실전 지시 체계로서 고급 편부터는 철저히 팔자술 실전의 첨단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물상의 결합, 나들이, 허귀, 허합자, 공협, 도충, 오운육기, 공망비약 등의 비법과 형충회합 스김에 대한 고도의 실기모범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풀지 못한 천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누구나 더 이상의 틀이 없이 적용시키는 필살기를 다듬게 되어, 실제상황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족집게추론을 하게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회장 혜천 법사 합창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정리 704-1
전화 031)768-8414~6 / 팩스 031)768-8413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 해 가 오리지널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형 최고의 수행도 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정지순례, 등산, 운전, 고신수행 등)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습보습, 보습보습 100%보장!**

*주요매장: KBS (성모병원사비빌, VJ특공대, 강정매거진 행복안오우) 출연 SBS (0.2명의 기억) 출연 KBS (불교방송 (무명술 밝히고)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2만원 (매우스킨)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 02-828-8282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한글 불교 상용 의식집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써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예로까지도 배려하여 조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면
- 제 2권:천도·사시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문의) 전화 031)448-5065 / 핸드폰 011-277-8024 (동협: 211012-52-203756) 박병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